

13
2/10
택아활동의 길잡이 1992년 10월호

함께 가는 길



지/역/사/회/택/아/소/연/합/회

*함*께*가*는*길*

작 업 새

일하며 생각하며 / 2

'함께 - 길'은 묻고 싶다

정희연

만나보았습니다 / 4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연대모임을 소개

이정희

아동교육 / 8

좋은 놀이는 노동의 준비이다

교육연구부

일본 탐방기 / 24

새로운 연대감을 느끼는 만남, 그리고

우리활동의 긍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 !!

최현숙

특집 / 30

어머니 큰잔치 평가 좌담회

편집부

활동총괄 / 40

전국 방방곡곡에 어머니 큰잔치 합성 올려

탁아소 별곡 / 43

탁아소 생활에서 기억나는 것, 두가지

전미경

소식과 소식 / 45

우리들의 목소리 / 53

편집부에서 / 59

탁아소 백과 / 3 신문속에 세상이 보인다 / 44 문화단신 / 57

지택연 벼룩시장 / 58

☆❶ 표지 사진 : 10월 11일 서울 국민대에서 있었던 어머니 큰잔치
에서 대동놀이 후 폐회 장면

'함께 가는 길'은 묻고 싶다.

정희연(부회장, 편집부장)

'함께 가는 길'이 이번달로 5번째 발간을 맞이했다. 매월 발간을 하고 나면 떠오르는 생각 몇가지 있으니, '함께-길'이 과연 교사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안 좋았는지, 편집부에서 바라는 것같이 항상 교사들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꽂아 두고 자주자주 펼쳐보는지.

사실 '함께-길'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편집부에서 확실하게 가늠해 볼 근거가 별로 없다. 그래서 편집부는 항상 궁금함을 갖게된다. 처음에 목적인대로 '함께-길'이 교사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탁아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존재인지, 이제 10월호를 내면서 한번 중간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처음 '함께-길'이 나왔을 때는 부수가 부족하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었는데 요즘은 그때와 똑같은 부수를 찍어냄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다는 이야기는 안들리니 받아도 그만이고 안받아도 그만인지 도무지 필자는 알 수가 없다.

항시 우리의 사업은 그때 그때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계획된다. 교사용 소식지 만해도 끊임없이 자양분을 제공받아 왕성한 활동을 펴야 할 교사들에게 마땅한 교육매체가 없음으로 해서 생기던 공백을 메꿔보고자 한 당시의 조건, 필요 속에서 탄생되었다. 한정된 역량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필자와 자주 대하는 교사들이나, 또 건너건너 들리는 이야기나, 때로는 각종 조사를 통해 나오는 결과를 보면 교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

로 교사 재교육이라고들 한다. 바른 일상활동속에서 스스로를 훈련하고 추스리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일인지, 교사들은 대부분 집단적인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달 한시 한장소에서 하는 일괄 교육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조금이라도 이를 메꿔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함께-길'이 될 수 있다.

매월 2~3쪽씩 나가는 기획물이나 특집물을 잘 소화해도 활동가로서 남부럽지 않은 소양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혼자 힘들다면 '함께-길' 교사 토론티를 조직해 보면 어떨까.

우리 교사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정치학습이 아니다. 오히려 지속성과 과감성(?)이 아닌가 싶다. 매일 '필요하다, 부족하다'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일단은 시작해보는 과감성, 며칠하다 팽개치지 않을 지속성,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이것이다.

'함께-길'의 주인은 우리 모두이다. 아직은 모자란점, 어설픈 점이 있다해도 여러분의 비판과 격려가 있을 때 모두 극복되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드는 우리의 '함께-길'을 기대해 본다.

탁아소백라

주방오염의 주범, 가스렌지

밀폐성이 높은 현대주택에서는 환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오히려 먼지가 들어올까봐 되도록이면 문을 닫고 사는 것이 더 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 주방공간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는 천연가스가 연소될 때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므로 실내가 산소부족이 되기 쉽다. 또 연소시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데, 이것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도 주역을 맡은 오염물질이다. 그 배출량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밀폐된 실내에서는 누적되므로 문제가 된다. 산소부족 및 질소산화물 누적으로 인한 건강장애는 주로 호흡기질환으로 많이 나타나 만성감기와 천식의 주원인이 된다. 물론 노약자 및 아기에게는 그 영향이 더욱 심감하다. 또 두통, 현기증, 식욕부진, 무기력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환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최선이다. 가스렌지를 사용할때는 좀 시끄럽더라도 반드시 환풍기를 켜고. 바깥공기도 오염되어 있는데 환기하면 뭐하나 할지 모르나 실내공기는 따로 공기정화장치를 하지 않는 한 바깥공기보다 더 오염도가 높다. (경실련신문)

만나보았습니다.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연대모임을 소개합니다.

이정희 (편집부)

어머니 큰잔치를 일주일 앞둔 10월 4일, 국민대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 모여 조형물을 만드는 사람들, 무언가 열심히 의견을 나누는 모습, 예쁜 색도화지로 꽃무늬를 오리며 웃고 있는 모습, 무려 7m나 되는 곳에 올라가 플랭카드를 거는 아슬아슬한 광경 등 가지 각색의 분주함으로 가득차 있었다.

놀이방 문을 들어서면 이모!삼촌! 선생님!하고 달라붙는 아이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존재이며, 함께 모여 어머니들이 처한 현실과 우리나라의 탁아정책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며, 어머니들이 거리에 나설때면 댄 앞에서 플랭카드를 들고 그 주변에서 열심히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하는, 그들은 이렇듯 탁아소의 일상활동에서부터 크고 작은 행사에 언제나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으면서도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자세를 보여 온, 바로 '탁아소자원활동가'들이다.

이러한 자원활동가들의 조직인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연대모임'을 취재하기 위해 국민대에 모인 여러 학교의 대표자들을 만나보았다.

이정희: 안녕하세요? 많은 교사들이 자원활동가를 만나면서도 '자원활동가들의 조직'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연대모임'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승범(연세대 탁아분과장):연대모임은 대표나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조직의 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89년에 탁아 활동을 하는 여러학교의 대표자들이 활동을 교류하고 어려움을 서로 나누며 연대하기 위해 만든것인데 90년에 백이 끊어졌다가 91년도 어머니대회를 기점으로 모이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략 14개 학교의 총여학생회 탁아분과, 연대사업분과, 동아리 등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희: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요?

나상국(홍익대 동아리 PAPA):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14일부터
15일,이틀동안 여
주 신록사에서 있
었던 자원활동가
수련회에서..



주로 처음 몇달간은 인사하고, 안면을 띄우고 신입 자활 홍보 및 교육, 후원회 조직에 대한 정보교환을 했습니다. 공동행사로는 작년의 경우엔 '신입자원활동가 공동교육'이 있었고 올해에는 '제육대회'를 했어요. 대표자들끼리만이 아니라 각 학교의 자원활동가들이 서로 만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7월에는 수련회를 갔었는데 한학기 활동을 함께 총괄하는 속에서 자기 학교 사정의 어려운점을 얘기하고 탁아운동을 보는 입장과 단위 탁아활동조직의 위상이나 전망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이진 못했지만 각 학교 활동의 미흡한 점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학기에는 어머니 큰잔치의 준비와 차기 대표자의 교육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정희:이번 어머니 큰잔치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또 어머니 큰잔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원혜경(성균관대 동아리 호우회):8월말에 1차모임을 통해 어머니 큰잔치의 의의와 대강의 흐름, 자활의 역할에 대해 숙지를 하고, 9월 16일에 2차 준비모임을 가져 자활들이 실천 활동할 거리를 찾았는데 그때 조형물과 선전물 제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이 3차모임인데 탁아방 꾸미기,안내판,공통,박동의 제작과 행사당일날 진행요원을 확정짓고 행사진행자활끼리 서로 얼굴도 익히는 단합대회를 겸하는 모임이죠. 행사전날이 4차모임이 될텐데 그때는 행사장을 꾸미고 행사에 필요한 시설을 비롯해서 모든 자질구레한 준비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날이 될거예요. 또 어머니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함으로써 큰잔치의 내용을 채운다면 자원활동가는 그 형식과 틀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행사진행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탁아를 도맡는 것도 자원활동가의 큰 몫이죠.

송범: 지금은 국민대로 확정이 되었지만 처음엔 저희학교에서 장소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학생처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몇 차례나 교섭을 했는데도 결국 안되고 말아 저희 학교의 자원활동가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시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번복이 되어서 중앙에서 행사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했어요. 내년엔 꼭 학교를 설득해서 저희학교에서 어머니큰잔치의 합성이 가득 차도록 할 것입니다.

황숙영(전국대 탁아분과): 어머니 큰잔치에 대한 제 생각은요. 자원활동가들이 평소에는 탁아소에서 아이들을 위해 활동했다면 어머니 큰잔치의 경우, 물론 탁아가 있기는 하지만 이날은 어머니들의 날이라고 생각해요.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보조라는 것은 단순보조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감 까지도 가미된 활동이어야 해요. 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 개개인에게는 일상적 탁아활동만 하다가 어머니들에게 이런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 확인되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일일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후원인들에게도 자신들의 후원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정희: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니 '어머니 큰잔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모아져서 치워지는 행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과정이 이렇게 알찬 만큼 행사의 결과 또한 탄스롭게 열매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어느 분이 조직의 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연대모임의 성격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연대모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상국: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는 '연대모임'이 너무 지탁연 행사에만 맞춰서 따라가고 내용이 결정되는 등 독자적인 자기 사업이 없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모임의 대표가 없는 이유는 무척 복합적일 것 같은데 우선 탁아자원활동이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도 자기의 내용성을 갖기 어렵고 조직을 꾸려가기도 힘들습니다. 그러므로 연대모임 자체도 이러한 개별 학교의 활동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직은 '무엇인가를 얻어가야지' 하는 수준이지 전체를 위해 발벗고 펼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연대모임에 참여하는 각 학교의 사정이 천차 만별이고 이를 조정하는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의 한계와 그에 따른 소극성이 그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숙영: 연대모임에 대한 제 생각은 보다 낙관적인 것 같은데 아직은 연대모임이

하나의 독자성을 갖거나 거창한 조직으로 발전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화되고 지속성을 갖고, 조금이라도 보다 나은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수준에서 연대모임이 채워나가야 할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모임에서는 차기주체의 선정시기나 방식이 다르고 교육이 함께 이뤄지지 않았는데 개별단위마다 서로 사업의 일정을 맞추고 차기 대표의 교육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을 갖는다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송범: 그렇지만 연대모임에서 지탁연의 행사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사업애기에 밀리다 보면 우리가 너무 지탁연 일정에 따라 간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자원활동가가 아직은 탁아활동가로서의 각성을 이뤄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어떤 때는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도 자원활동가의 위상과 역할이 탁아운동과의 연관속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므로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또한 학내에서 자원활동가 모임이 일반학우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활동가들간에도 의식에서의 많은 차이를 보이니까 공유점이 한정되기도 하고 아예 위와 같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기도 합니다. 연대모임에 참여하면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양측면을 놓고 갈등을 느낍니다.

양현선(산업대 탁아분과):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가 나가는 탁아소는 교회에서 운영하며 지탁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모임에서 하는 얘기와 탁아소에서의 얘기와 감이 잘 안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놀이방의 경우 선생님들이 지탁연 활동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또 많이 전달해 달라고 하세요. 또 자활들이 그러한 내용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교회소속이기에 자유롭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지탁연 소속 탁아소가 되는 것이 용이해질거라면서 자원활동가들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세요.

정희: 애길 나누다보니 무척 열기가 고조되는데요. 연대모임과 지탁연과의 관계, 연대모임과 각 개별 단위와의 관계, 연대모임과 각 학교와의 관계 그리고 탁아자원활동의 위상에 여러분의 고민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면 관계상 논의를 지면밖에서 더 진행시키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의 만남속에서 제가 한가지 발견한 것은 자원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안고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탁아활동에서 변함없는 헌신성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의 논의는 무척 건강하고, 반드시 생산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리란 기대가 듭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놀이는 노동의 준비이다.

교육연구부

1. 들어가는 말

아이들은 탁아소에서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 많은 시간동안 '놀이'를 하며 보낸다. 아이를 온종일 돌보고 교육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아이의 놀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고 어떻게 놀이를 바르게 지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은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이 글에서는 '좋은 놀이는 좋은 노동의 준비이다'라는 철학에 기초하여 아이의 놀이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말

(1) 놀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놀이'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은 '노는 것', '쓰는 것', '즐기는 것'... 등등 소비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놀이의 본래적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놀이를 통해 인간은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음 노동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한다. 함께 어우러지고 한바탕 신나게 놀아제끼는 놀이판에서 자기를 내어놓고 타인을 느끼며 '우리'라는 일체감과 공동체감을 형성해갈 수 있다. 과거 농경시대의 놀이문화를 돌아보면 일과 놀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게된다. 놀이는 힘든일을 가볍고 즐겁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하도록 돕는 기능을 했다. 모내기철 노동요를 부르며 그 노랫가락에 맞추어 모내

기를 한 것이 그 일례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놀이문화는 노동과의 일치나 공동체 의식 함양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놀이를 구경하거나, 개인적으로 고립되어 TV나 비디오 전자오락에 빠지지 않으면 밤새 고스톱판을 벌이는 등 소비적이고 상업적이며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놀이를 한다.

이렇게 어른의 놀이가 본래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의의를 잃어버리고 노동과 놀이가 별개인 것이 되어버렸지만, 건강한 놀이는 노동과 결합하고, 새로운 노동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인간의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2) 아이와 놀이

아이에게 있어서 놀이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아이의 놀이에서는 원래적인 놀이의 의의가 살아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아이에게는 놀이가 곧바로 일이다. 어른이 일을 하지않고 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와 놀이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물론 아이의 놀이가 사회적 생산물을 생산해 내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자신의 놀이를 통해 습득한 기능과 태도, 자세가 노동으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아이를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다. 아이는 어리고 몸이 작고, 논리력 사고력이 어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만들어가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가 쉽다. 그러나 아이는 인성을 가진 인격체이며 어른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아이의 이런 특성은 어른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코 열등하지 않으며, 아이는 자기 삶의 능동적인 주체라고 보는 시각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 시각이 바로 '아동중심 교육철학'의 출발점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아이를 교육하려면 우선 아이들의 생활 양식과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아이들은 미숙하고 아직 성장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 있다. 이 성장의 과정이 아이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큰 특성이며 이 시기 아이의 생활은 먹고 자고 하는 일상 활동을 제외하면 모두 놀이로 구성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은 실재없이 움직이고, 호기심을 갖고 사물과 주변환경을

탐색하며, 만지고, 실험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하는 이 모든 활동이 바로 '놀이'이다.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생활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생각하고, 배워나간다. 그러므로 아이가 어떻게 노느냐는 아이가 어떤 성인으로 자라날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이처럼 놀이가 아동에게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때 우리의 교육에서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놀이를 교육의 주요한 내용으로 잡고 잘 조직해 나가는 것이 중심적인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3) 놀이의 역할

놀이는 아동의 창조적 본성을 구현하는 과정이다.

아이는 놀이를 통해 성취의 기쁨, 승리의 기쁨, 미적인 만족감을 얻을 뿐 아니라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노동의 조건들을 습득할 수 있다. 아이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계획하여 그 계획한 바를 자신의 상황에 추어 실천에 옮기고 교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놀이행동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어린이의 자율성, 실행능력, 사고력이 길러진다. 이런 능력들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노동하는 존재가 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아이는 계속 움직이고 만지고 듣고 쳐다보는 일을 하여 근육발달과 감각적능력을 키울뿐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 인지적 발달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놀이속에서 두려움이나 흥분, 갈등 등의 억압된 정서를 표출시키고 해소 한다는 사실도 잘 알려진 놀이의 역할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놀이의 기능으로는 사회적 발달을 들 수 있는데 아동은 극놀이, 역할 놀이, 게임 등을 통해 또래와 관계를 맺고 사회관계를 배워 나간다는 점이다. 다른 아동과 함께 놀려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놀이에서 언어적 발달도 이루어진다. 이처럼 놀이는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한 영역, 즉 신체 인지 정서 사회 언어적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발달을 총체적으로 이루어 올바른 사회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라 할 때 이와 같은 여러 발달영역 중 인지발달에만 중점을 두어 똑똑한 아이로만 키우려고 하는 근래의 경향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놀이를 통한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일련의 인지중심교육도 놀

이의 의미를 올바르게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한다. 놀이는 아이의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올바른 노동의 조건들을 빠짐없이 습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이다.

(4) 좋은 놀이란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여러가지 경험을 하고 세계를 익혀나간다. 그러므로 아이의 교육은 놀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어린시절부터 성실한 생활 속에서 바르게 조직된 놀이의 풍습을 익히며 자라는 아이가, 일하기보다는 놀기를 좋아한다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남은 돌아보지도 않는 어른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탁아소 교육의 목적이 민주적이고, 성실히 노동하며, 더불어 사는 인간을 기르는 것에 있다면 이를 위해 좋은 놀이를 하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이로써 정신이나 육체 모두를 잘 기르는 일이 바로 교사의 책임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좋은 놀이란 어떤 것일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놀이와 일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좋은 놀이의 특징을 좋은 일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좋은 놀이는 좋은 일과 비슷하고 나쁜 놀이는 나쁜 일과 닮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린이가 태엽만 감아놓으면 북을 치며 돌아가는 곰인형을 가지고 하루종일 태엽을 감고 풀며 이 곰인형만을 들여다 보고 즐기고 있다면 이 놀이는 전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 놀이에서 아이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지켜보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어린이가 그러한 놀이만을 하고 있으면 일을 하게 될때에도 소극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습관이 생겨 창의성이 없어진다. 일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습관이나, 곤란을 이겨내는 습관을 길러주지 못하면 생각만 할 뿐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적극적 활동이 없는 놀이는 좋지 않은 놀이이다.

좋은 놀이는 어린이가 실제로 놀고 짓고 조립해 가며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조건을 마련해주는 놀이이며, 아이의 창의성과 사고능력을 신장시키는 놀이이고, 놀이를 통한 성취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이다.

(5) 놀이의 종류와 발달 단계

아이들에게 올바른 놀이의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의 놀이 종류와 발달의 과정을 알아야 한다.

1. 놀이의 종류

1) 감각, 운동놀이

소근육과 대근육을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감각기관 의한 탐색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가 있으며 취학전 아이의 경우 이 놀이가 대부분 주요한 형태로 나타난다..

2) 상징놀이

아이가 놀이감이나 사물을 갖고 또 몸짓을 통해 무엇인 채 하는 놀이이다. 언어적인 상호작용하기, 어떠한 역할을 취하며 언어로 그 역할을 표현하기, 인형, 동작, 자료, 말 등을 실제 사물의 내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요소가 나타나면 사회극놀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의 상징놀이는 2살 정도부터 발달하여 3살이 되면 상당히 증가한다. 그러다 4세 경에 사회극놀이가 시작되어 5,6살 정도까지 나타나며 7살이 되면 이 놀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아이들의 상징놀이의 발달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2살)

상징놀이에 실제 사물이 필요하다. 아이는 빈 컵을 가지고 무엇을 마시는 시늉을 한다. 다른 물건을 가지고는 컵이라는 상상을 못한다.

(2단계 - 2살 ~ 2살 반)

실제 사물과 유사한 물건을 활용할 줄 안다. 예를 들어 동그란 나무토막으로 컵인 양 물을 마시는 시늉을 한다.

(3단계 - 2살 반 ~ 3살)

모양이나 목적에 상관없이 어떠한 물건도 상징놀이에 활용한다. 예를 들어 소꿉놀이를 하는데 장난감 자동차에 운전사로 나무토막이 사용된다.

(4단계 - 3살 ~ 3살 반)

상징놀이를 하는데 반드시 물건이 필요하지는 않다. 나무토막, 컵 등이 없이 그냥 손으로 물을 마시는 흉내를 낸다.

(5단계 - 3살 반 ~ 5살)

다른 친구를 참여시켜 사회극놀이를 한다.

3) 구성놀이

물감, 종이, 점토 등 다양한 물질을 사용하여 상징적 산물을 만드는 놀이이다. 이 산물은 아이가 지적으로 성장해 가고 사물을 다루는 기술이 증진되면서 더 정교화되고 세부적 요소가 생긴다.

이러한 각종 놀이의 발달적 추세를 종합적으로 보면 감각, 운동놀이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감소하며 상징놀이는 사회극놀리로 변화해 간다. 이에 비해 구성놀이는 나이에 따라 늘어가며, 보다 효과적으로 규칙 있는 게임을 할 수 있게 된다

4) 규칙있는 게임

협동적 놀이로서, 아이들이 함께 놀이를 하는데 사회적으로 동의된 규칙이 있는 경우이다. 대개 5~6살 정도까지의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이 개입된 게임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단순한 게임은 가능하다.

2. 놀이의 발달 형태

여러가지 발달에 대한 이론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은 다음의 것이다.

1) 방관적 행동의 단계

하는 일 없이 우두커니 다른 아동이 노는 것을 쳐다보는 것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낯선 환경에서 주로 나타나는 행동이다.

2) 혼자놀이의 단계

아이가 혼자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으로 다른 아이에게 말을 걸거나 가까이 가지 않는다. 2~3살 아이에게 많이 나타난다.

3) 지켜보는 행동의 단계

다른 아이가 노는 것을 곁에 서서 지켜보는 행동으로, 때로 말을 걸고 질문도 하고 간섭도 하지만 서로 같이 놀지는 않는다.

4) 병행놀이의 단계

다른 아이의 곁에서 같은 놀이를 하지만 직접적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로 옆의 아이가 놀이를 중단하면 자신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5) 연합놀이의 단계

두 사람 이상의 아이가 서로 장난감을 빌리거나 빌려주면서 노는 것이다. 그러나 놀이의 조직이나 분담은 없다. 3~4살 아이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6) 협력놀이의 단계

여러 아이가 어울려 일을 분담하여 조직이 나타나는 놀이다. 4~6살 아이들이 많이 하는 병원놀이, 시장놀이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놀이형태는 한 단계를 지나 다음 단계로 단절되어 이행해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교사는 아이들의 이런 발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아이들의 특정한 상황에 맞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놀이감

놀이감은 아이들의 놀이를 촉진, 확장, 발전시켜주는 중요한 매개물이다.

또한 놀이감은 초기 발달에서 아이의 감각과 운동 기능을 배우는데 힘이 되며 그 뒤에는 점진적으로 인성과 지능, 정서와 사회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이에게 사물을 관찰하고 조작하는 물리적 경험을 제공하여 아이의 상상력, 호기심, 창의력을 불러일으킨다.

구소련의 교육학자인 마카렌코는 놀이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어린이의 놀이는 몇개의 발전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에서는 각각 특별한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제1단계는 실내놀이의 시대, 놀이감의 시대이다. 이 시기에는 아이가 혼자 놀고 싶어한다. 자기 놀이감으로 놀기를 좋아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놀이감으로 놀면 기분이 나지 않는 까닭이다. 이 단계에서 아이의 선천적인 재능이 형성된다.

아이가 혼자서 놀면 에고이스트가 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이에게 혼자 노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혼자 놀기 좋아하는 기분은 친구들과의 집단적인 놀이에 대한 흥미로 점점 이행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제2단계이고 2단계는 주로 국민학교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가 더 이상 부모의 눈앞에서 놀지않고 더 넓은 무대로 나가기 때문에 또래 관계가 아주 중요해 진다. 제2단계를 통해 어린이는 사회를 배워 나간다.

우리가 탁아소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대개 제1단계에서 제2단계 초반까지의 아이들이므로 제1단계에서 놀이의 중심이 되는 놀이감에 대해 알아보자.

1. 완제품 장난감, 기계 장치가 되어 있거나 또는 단순한 장난감, 여러가지 자동차, 배, 말, 인형, 오투기 등이다.

완성된 놀이감의 장점은 아이를 복잡한 고안이나 사물에 친숙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이다. 그러한 놀이감은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준다. 장난감 기관차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상상을 불러 일으키고 장난감 인형은 얼마나 아빠, 아기의 역할을 연기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교사는 완제품 놀이감의 이러한 좋은 점을 아이가 깨우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가 그 기계장치나 놀이의 편함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절반은 완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아이가 조립해서 완성시켜야 하는 놀이감이다. 빈 칸이 있는 그림, 조각난 퍼즐, 나무 블록 쌓기, 조립식 장난감, 분해 또는 모형 장난감 등이 있다. 이런 놀이감의 좋은점은 특정한 과제를 주고 그 해결에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 스스로는 내놓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사고 방법과 논리적 이해력을 높여준다.

그러나 이 놀이감들은 과제가 언제나 똑같고 한결같이 반복되게 때문에 곧 싫증이 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 점토, 모래, 물감, 밀가루 반죽, 물, 빈 상자, 나무, 종이, 식물, 철사, 못 등 여러가지 놀이 재료가 있다. 이런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기가 매우 쉽고, 정해진 목표나 금지하는 내용이 없으며, 아이들의 발달에 가장 도움이 되

는 놀이감이다. 이들 놀이감은 정상적인 인간활동에 무엇보다 가깝다. 이들 재료에서 인간은 가치와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재료에는 리얼리즘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환상이나 단순한 상상 이외에 커다란 창조적, 노동적 공상을 위한 넓은 여지가 있다.

어떤 유형의 놀이감이 가장 좋은가? 제일 좋은 것은 앞의 세가지 유형을 조합시키는 것이다. 놀이감의 종류는 절대로 한꺼번에 많이 늘어놓지 않는다. 한두개의 기계 놀이감이 있다면 그 이상은 필요가 없다. 적당한 종류와 분량의 놀이감을 제공하고 아이들 스스로 이 놀이감으로 놀이를 조직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놀이속에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창조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인형놀이를 할때 먼저 인형놀이에 필요한 것을 모두 구비해서 처음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형놀이를 하면서 인형이 살 집이 필요해졌다고 하면 빈 상자를 가지고 인형집을 만들 수도 있다.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놀이감 외에 실물놀이감을 사용했을때 놀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훌륭한 놀이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아이들의 성장발달을 돕는 것이 놀이감의 기능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해가 되는 놀이감도 많이 있다. 폭력적인 TV영화나 비디오, 전쟁 놀이감 등이 그것이다.

이런 영화나 무기류 놀이감들은 지나치게 폭력적이어서 아이들에게 공격적이고도 파괴적인 성향을 길러주며, 생명 경시와 정복 욕구, 흑백 논리와 폭력 지향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폐해를 낳는다.

아이들의 놀이감은 놀이를 통해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고안해 내고 그 방법들을 익힐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퀴가 빠진 자동차나 짝이 맞지 않는 퍼즐등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물론 탁아소의 경제적 여건상 한꺼번에 많은 놀이감을 구입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한 놀이감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곧 흥미를 잃을 뿐 아니라, 놀이감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되며 아이의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놀이감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도화지나 색종이 등 교재 구입비가 매달 지출되는 것과 같이 놀이감 구입비도 예산으로 책정하여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놀이감을 계획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7) 교사의 놀이지도

교사가 아이를 좋은 놀이로 이끄는 것은 크게 두가지 범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철학적 문제로 아이들의 놀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지도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놀이와 생활 속에서 현재의 발달과 기쁨을 주도록 하고 이후 사회생활속에서 노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육체적 심리적 습관이 교육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아이들 놀이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도이다.

아이의 연령과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좋은 놀이를 선정하는 일과 놀이를 위한 여러 놀이감이나 도구, 물리적 신체적 환경을 준비해주는 일, 놀이를 바르게 지도하는 일 모두가 교사의 할 일이다.

바르지 못한 놀이 지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교사가 놀이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고 놀이 방법에 대해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 혼자 알아서 놀라는 태도이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놀고 만다.

다른 경우, 부모나 교사가 놀이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늘 아이의 놀이에 끼어들어서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어떤 문제를 내놓고 아이가 풀기 전에 다 풀어준다. 이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고작 어른의 흉내를 내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할때 아이들이 어른보다 익숙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럴 때 어른이 늘 해주기만 하면 아이는 '어른은 뭐든지 잘하고 난 못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자신감이 없고 실패를 두려워 하는 버릇을 갖게 된다.

교사가 아이의 놀이를 지도할때 특별히 유념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의 놀이가 놀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노동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탁아소 생활에 있어서도 아이가 자신만을 위한 일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일, 그리고 모두에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배려한다. 예를 들어 놀이감 정리 정돈이나 식탁 치우기 등에 대해 역할을

나누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교사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흥미를 가지고 놀이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아침에 아이들이 탁아소에 오기 전에 미리 한 탁자에는 미술 작업, 다른 방에는 인형과 블록, 마루에서는 책보기와 음악듣기 등을 할 수 있게 준비해준다면 아이들이 유쾌하고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아이들이 하루중에 많은 시간을 자유놀이 시간으로 보내는 우리의 여건에서 다양한 놀이와 놀이감을 제공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놀이감에 흥미를 잃으면 다들 친구를 괴롭히거나 몸싸움을 하는 일이 많아진다.

4. 놀이감을 높은 장 위에 놓고 교사가 임의로 꺼내주는 것은 아이에게 좌절감을 경험하게 할 뿐 아니라 아이의 자발성을 억누르는 일이다. 놀이가 아이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라 했을 때 그 전제조건인 놀이감이 아이의 자율적인 통제 아래 있지 않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5. 많은 탁아소에서 매일의 대집단 활동시간을 '공부 시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공부와 놀이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나온 결과이다. 교사주도의 대집단 활동 또한 놀이의 연장이다. 이 시간의 명칭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자.

6. 놀이의 주체가 아이임을 알고 놀이하는 아동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이가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이 놀이를 계속할 때는 즉시 교사가 개입해서 아이의 놀이 상대가 되어 주거나, 흥미있는 재료를 제시해주어서 아이의 놀이를 확장시켜 준다.

7. 아이가 교사의 도움이나 참여를 요청할 때는 주저 없이 뛰어들어야 한다. 이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8. 아이의 놀이에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으려면 차분한 관찰이 필요하다. 적어

도 한명의 교사는 모든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필요한 사항을 포착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도록 한다.

9. 아이의 놀이를 풍부하게 하고 잘 지도하기 위해서 우선 교사는 놀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놀이감이나 놀이 영역을 준비하고 환경을 마련한다.

10. 아이들의 놀이가 잘 되고 있는가를 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즉 교사가 보기에 어설피고 단순해 보인다고 해도 아이들에게는 큰 즐거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놀이를 그 자체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11. 아이의 연령별 발달수준에 맞는 놀이감을 제시해준다.

12. 아이들이 자신의 놀이에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 무얼할지 몰라서 친구의 놀이를 방해하는 아이에게 흥미있는 놀이를 소개해주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극놀이나 게임에 끼어들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아이는 놀고 있는 아이들과 상의해서 끼워주도록 한다.

13. 놀이감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우선 잘잘못을 가리거나 따지기보다는 서로 나누고 사이좋게 어울리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교사가 말로 표현해주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14. 자기가 논 놀이감이나 함께 놀았던 놀이감을 반드시 스스로 치우게 지도한다.

15. 아이가 처음에 시작한 과제를 남겨 놓고 다른 과제에 덤벼들지 말도록 지도한다. 즉 시작한 것은 끝까지 하도록 한다.

16. 어떠한 놀이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지도한다. 놀이감은 항상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부서지고 망가진 것은 고쳐야 한다. 예들들어 찢어진 책은 낱을 정하여 아이들과 함께 붙인다.

3. 맺는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에게 있어서 놀이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므로 교사는 아이의 놀이가 그저 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배움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놀이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여러가지를 준비해 주고 올바르게 놀이지도를 함으로써 놀이를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속에서 이루어진 놀이를 통해서 익힌 여러가지 태도와 능력과 자세는 나중에 아이가 성장하여 성실하게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회인이 되는데 기본 조건이 된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한 우리의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창조적으로 놀이하고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자.

** 생각해 볼 문제

1. 아이들에게 놀이란 어떤 의미인가?
2. 좋은 놀이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토론 할 문제

1. 아동의 놀이를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기 평가를 해봅시다.
2. 자유놀이 시간의 바람직한 놀이지도를 위한 물리적, 심리적 환경구성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 별첨 1 *

< 나이별 놀이감 >

1. 1살에게 알맞는 놀이감

모빌, 딸랑이, 요람, 회전오뚜기, 큰공, 종합놀이 상자, 매달고 당기는 놀이감, 쌓기컵, 팔맞추기, 밀고 당기는 놀이감, 소리내는 놀이감, 밀치는 놀이감

2. 2살에게 알맞는 놀이감

선명한 사진으로 된 책이나 카드, 간단한 퍼즐, 토막 쌓기, 모형 트럭이나 대형차, 큰 인형, 그림책, 전화기, 간단한 악기, 비행기, 기차 모형, 블록, 크레파스, 물, 모래놀이감, 모형 맞추기

3. 3살에게 알맞는 놀이감

* 일반적인 놀이감

오르기를 위한 널판지, 쉽게 오를 수 있는 평평한 기구, 세발자전거, 레고블럭, 다양한 색깔로 된 큰 나무못과 못판, 플라스틱 동물들, 밀가루, 모형 동물, 오르기 기구와 연결된 미끄럼틀

* 가작화 놀이를 위한 놀이감

인형과 인형 악세사리, 가정용품, 바퀴달린 여러종류의 차, 여러가지 다양한 의상

* 손가락과 손힘을 위한 놀이감

구슬 꿰기, 단추나 끈을 사용하는 형질 책이나 놀이감, 블록, 고무공, 흑판과 분필, 크레용, 풀그림물감, 점토

* 기타

널판지(조립하고 옮기고 잡아끌고 걸을 수있는 것), 점토, 통나무, 속이 빈 적목, 포장용 상자, 비누방울, 그림물감을 사용하는 데 쓰는 큰 페인트붓, 커다란 나무로 된 끼우기 자료, 큰 조각으로 나누어진 끼어맞추기

4. 4~7살에게 알맞는 놀이감

* 널판지류(시소에 필요한 널판지, 균형잡기와 미끄럼틀에 필요한 널판지, 뛰기에 필요한 것,

조립하고 잡아끌 수 있는 작은 널판지)

* 오를 수 있는 기구(정글짐, 타워짐, 사다리, 상자...)

- * 형검책, 동화책류, 의자와 책상
 - * 기본미술자료(종이, 물감, 붓, 포스터칼라, 색연필, 크레파스, 싸인펜 등)
 - * 인형자료들
 - * 옷 상자(지갑, 모자, 장갑, 스카프, 형검 등)
 - * 가정 용품 놀이감
 - * 주방 용품 놀이감
 - * 음악기구 - 여러가지 악기와 카세트 테이프
 - * 동식물 표본, 사진, 그림자료
 - * 끼우기 상자류와 포장용 상자 - 아동이 오르기에 충분히 큰 것
 - * 바구니와 상자, 퍼즐, 흔들말, 줄, 슬라이드
 - * 모래상자, 모래용 놀이감(술가락, 그릇, 모래삼, 차등)
 - * 비누방울, 망치, 큰못, 부드러운 나무
 - * 세발자전거, 끌고다닐 수 있는 수레
 - * 작은 비행기, 자동차, 트럭, 배, 기차, 나무나 고무로 된 자동차, 연결할 수 있는 블럭기차
 - * 사회극적놀이 세트들
 - * 공, 팔주머니
 - * 각종 적목류, 날카롭지 않은 가위
 - * 구슬 꿰기 자료, 점토
 - * 펀치로 구멍을 뚫은 카드
- 놀이감은 많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항상 깨끗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5. 피해야 할 놀이감

- 1) 모든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단계의 아이들에게는 입으로 삼켜버릴 수 있는 작은 것, 부분이 작게 분리된 것, 유독한 도료를 칠한 것, 부속품이 있는 동물놀이감을 주면 안된다.*
- 2) 2~3살의 아이들에게는 표면이 날카롭고 거친 날이 달린 것, 작고 메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유독성 칠이나 장식이 있는 것, 공기들, 동전, 구슬등의 작은 것을 주어서는 안된다.
- 3) 놀이감을 주로 갖고 노는 3~4살의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놀이감, 깨지거나

산산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 전기용 놀이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 별첨 2 *

〈 놀이감 제작, 구입시의 기준 〉

- ☞ 아이의 발달수준에 맞는가?
- ☞ 다양한 놀이활동과 발달을 조장하는가?
- ☞ 아이들이 스스로 조작하고 완성하기에 가능한가?
- ☞ 견고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가?
(조각이 떨어져서 목구멍에 들어갈 위험이 없는가?, 유독한 도료를 쓰지 않았는가?, 모서리의 마무리가 날카롭지 않은가? 등)
- ☞ 색채가 아름답고 선명한가?
- ☞ 상상력이나 논리 수학적 사고력등 인지능력을 발달시키기에 적합한가?
- ☞ 신체 운동발달을 도울 수 있는가?
- ☞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함께 놀 수 있으며 2명 이상의 공동놀이가 가능한가?
- ☞ 아이들의 흥미와 개성에 적합한가?
- ☞ 이동놀이감의 경우 아이가 옮기기에 적당한 크기와 무게인가?
- ☞ 상품화된 놀이감의 경우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가 되어 있는가?

새로운 연대감을 느끼는 만남,
그리고 우리 학동의 긍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

최 현 숙 (본 회 회장)

오오사카에 있는 「유유아 (乳幼兒) 발달연구소」의 15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위하여 9월 21일 부터 일주일간 일본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8월 오오사카에 있는 탁아관련 실무자들이 한국의 보육상황과 공동체적 삶을 살펴보고자 한국을 방문하여 소속 탁아소들을 방문한 바 있는데 이를 계기로 당시 일행이었던 연구소 간사인 다나카여사의 주선으로 초청된 것이다. 초청자는 혼자였는데 박성연간사가 개별적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동행하였다.

9월 21일 월요일, 김포공항을 떠난지 불과 1시간 30여분밖에 지나지 않아서 일본 오오사카에 도착하였다. 도시의 첫모습이 서울과 비교하여 조금 덜 복잡하고 덜 화려하였고 외관상 일본글자로 쓰여진 광고물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 그날 일정은 먼저 캐슬호텔에서 여장을 풀 뒤 연구소의 환영회로 시작되었다. 짧은 교섭 끝에 부랴부랴 달려간 것이어서 초청의 목적을 충분히 알 수가 없었는데 그날 연구소 이사장을 통해 들은 바로는 일본국회에서 아동의 권리조약을 통과시키기 위한 압력 수단으로 본 행사가 이뤄졌다는 것과 15살을 맞이하는 연구소가 여태껏 자체적 행사를 하였다가 처음으로 다른문화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세계적 교류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초청된 발표자는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교수인 바바라여사, 태국의 유아원장인 라다 판씨, 그리고 한국에서 탁아관계자 대표로 내가 초청되었다.

4개국어의 통역이 오가는 바람에 한마디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몇배의 시간이 걸렸고 긴장과 어색함이 있었으나 탁아와 관련하여 나이드신 분들이 버티고 있

는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다소 흥미롭고 의미있는 만남이었다. 저녁 11시 가까이 숙소로 돌아와서 내일 있을 심포지움 발표들을 점검하였다.

22일 화요일, 오전에 스즈키소장의 회의 주제로 심포지움에 대한 취지 및 발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요청이 있었다. 비로소 방일전 나의 염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유유아 발달연구소의 하는일과 고민은 아동교육(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소였고 따라서 그들의 요구는 한국의 아이들이 어떠한 권리속에서 보육되고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타국에서 보는 일본아동에 관한 문제를 제시해달라는 것이었다. 결국 일본의 사정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나로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되었고 또한 나의 발표내용은 척박한 한국의 탁아상황에서 교사와 부모가 열심히 활동하여 올바른 탁아제도를 확보해가는 것으로 일관된 것이어서 주최측의 요구와는 다소 이질적인 것이 되겠으나 그대로 발표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심포지움은 2시부터 시작되었다. 참가단체는 자치노(조), 대판부교직원조합, 대판부사립유아원연맹, 민족교육촉진협의회, 전국해방보육연합회, 대판시사립보육원연맹 등으로 약 350여명이 모였고, 처음부터 진지한 자세로 끝까지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첫번째로 발표한 바바라 교수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미국내 있는 소수민족 아이들의 현실을 다소 피상적으로 소개하였다. 결론적으로 피부나 인종이 다르고 비록 가난한 삶을 살지라도 그들은 행복한 아이들이며 또한 행복을

유유아 발달 연구소
창립 15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에서
왼쪽부터 '망의문'
보육교사, 필자, 김덕
환 성화사회복지관
총무, 박성연간사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한국의 탁아현실과 탁아운동의 전개 과정을 소상하게 알릴 기회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라다 판 원장은 태국 빈민 아이들의 삶의 모습과 그속에서 유아원(탁아소)이 하고있는 역할을 슬라이드를 통해 보여주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본아이들의 지나친 보호에 문제제기를 하였다.

통역에 따른 시간의 부족으로 질문 및 자유토론의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주최측의 요구에 충실한 발표가 되지 못하였으나 각 나라의 탁아관련 아이들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행사 자체가 소기 목적에 일정 정도 도달할 것이라는 점에서 흐뭇해하는 분위기였다. 심포지움에 이어서 곧바로 15주년 기념 리셉션이 있었다. 이 연구소는 일본내에서 진보적 사회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지긋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행정관청 책임자의 축하 등의 참여는 우리나라와의 정치적 상황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이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탁아상황에 관심을 갖는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눌 기회를 가졌다. 10시 넘어서 리셉션이 끝나자 일단 가장 중요한 행사를 마쳤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풀리면서 비로소 피곤함을 느꼈다. 그러나 전에 방한하여 한국의 젊은 탁아교사들의 활동에 굉장한 감격을 받았다는 히구찌선생의 배려로 그곳 보육교사로 있는 한국 교포2세인 김춘자씨가 일주일 동안 우리와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호텔로 돌아온 뒤 우리의 활동의 여러 모습을 그녀에게 소개할 기회를 가졌다. 12시가 넘어서 하루를 마칠수가 있었다.

23일 수요일, 드디어 가보고싶던 일본의 탁아소 방문이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간 곳은 '성애원'이었다. 한국에 오셨던 에다모찌 원장님이 계신곳이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국민학교를 연상케하는 규모의 탁아소를 면밀히 살펴본 후 그곳에 다니는 장애아동과 졸업한 장애아동이 1년에 한번 갖는 공동행사에 참석하였다. 그 날은 추분이었는데 일본은 그날이 국경일로 우리나라 추석과 맞먹는 날이라 한다. 40여명이 인근 농원에 가서 밤줍기, 고구마캐기를 한 후 점심을 같이 먹었다. 일본의 경우 일단 제도적으로는 어느정도 정착되어있는 곳이기에 제도요구 투쟁보다는 보육내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주된 활동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장애아가 올바른 권리하에서 보육되는가가 매우 중심적 고민이자 활동이었다. 우리는 참석하신 1회 장애아 졸업생자모와 공무원노조원인 자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와서 각방에 대한 견학과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숨도 돌리기전에 곧바로 전에 방한 했던 분들과 환담회를 가졌다. 낯선 곳에서 다시 만나니 참으로 반가웠다. 어제의 심포지움을 통해 비로소 한국상황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서 이제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 지탁연에서 제공한 불고기는 평생 잊지 못할것이라는 감사말, 소주와 동동주가 그렇다는 말, 한국의 기독교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는데 그날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교포2세인 한 교사의 자기 이야기에서였다.

20대초반인줄 알았는데 40세라는데 일단 놀라게 한 이 선생은 자신이 방한하려는데 어머니의 반대가 무척 강했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모녀를 남기고 한국으로 혼자 돌아간 아버지가 다시 한국에서 재혼하면서 영영 헤어지게 된 것인데 따라서 한국은 모녀를 버린 아버지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장님의 설득으로 결국 한국땅을 가게되었는데 그 자체가 감격이었고, 돌아와서 선물을 받으신 어머니가 매우 우셨는데 그 눈물을 통해 비로소 깨달은 것은 한국에 가시고 싶은 분은 결국 어머니였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셨고 같이있던 김춘자씨는 통곡에 가까운 눈물을 흘렸다.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조국'에 대한 애정은 모든 동포들이 갖는 가슴앓이이며 끊을 수 없는 연이었다.

숙소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한국이야기를 춘자에게 전해주었다. 1시 넘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 친구는 많은 감명과 위로를 받았다고 하였다.

24일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온몸이 퉁퉁 부었다. 물집이 생기고 상처난 발은 퉁퉁 부어서 신발신기가 너무 힘들었다. 일정이 생각보다 강행군이어서 몸에 상당한 무리가 되었다. 오늘의 일정은 먼저 '동화부락운동'을 벌이고 있는 탁아소와 단체방문이었다. '동화부락운동'이란 천민인 백정집단들이 아직도 신분적 차별을 받는데 대한 저항운동으로 그들의 움직임은 다른 어디보다도 활기찬 모습을 엿볼수가 있었다. 방문한 곳은 두곳의 탁아소와 단체사무실로 20여년동안 자신의 운명에 대항하여 투쟁한 것과 그것이 다른 부문과 연대하여 활발하게 전개된 활동이야기를 감명깊게 들었다. 특히 한 탁아소에서 아이들이 한국어로 산토끼노래를 부르며 환영하였는데 울동으로 답사하였더니 매우 반가와하여서 같이 배웠다.

오후에는 히구찌선생이 계시는 (회) '망의 문' 보육원에 갔다. 그곳은 비교적 새로 지은 건물이어서 규모는 다른 탁아소와 비슷하지만 매우 깨끗하고 좋았다.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눌 기회를 가졌는데 아이들의 활발한 영접은 우리를 기쁘게 하였다. 히구찌선생의 고민도 장애아 탁아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 곳도 다른 탁아소와 마찬가지로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한 보육활동이었는데 따라서 우리의 경우와 유사한 문제, 즉 부모들이 원하는 바와 이곳의 보육방침이 다름으로 인해 갈등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곳 출신아이들이 처음 학교에 가면 다소 불리하지만 그들이 이곳에서 경험한 창조력과 자발성으로 인해 오히려 낫다는 주장이었다. 특별히 히구찌선생은 도착한 날부터 오는날까지 우리를 아주 정중히 영접했다. 지병이 도져 약을 먹지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한국에서의 감명을 평생잊지 못할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은 다소 부끄럽지만 사실인것 같았다.

저녁에는 연구소에서 여는 환송회를 가졌다. 매우 형식적일 수 있는 자리지만 탁아운동을 하는 분들도 참석하는 바람에 오히려 가장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그분들은 신보수주의 경향으로 일본의 탁아정책이 퇴행되었느냐는 우리측의 질문에 매우 정색을 하며 정부가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5년전에 싸움을 통해 이겨내었으니 오해하지 말고 한국에서도 굳세게 활동해 달라는 격려까지 해주었다.

25일 금요일, 토요일은 아침 일찍 떠나므로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날이다. 이날은 한국동포들이 80%이상 산다는 '생야'라는 곳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오

'(회)망의 문' 보육원
방문시 아이들이 준
비한 선물을 받으며



늘은 일주일만에 달지않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즐거운 날이기도 하다. 기대에 부풀어 방문하였다. 거리는 다른 곳에 비해 약간 낙후된 듯 하였다. 시장통로에 들어서니 주변에 조화(造花)로 줄이온 장식을 제외하고 내용만 들여다보면 한국의 어느 한 시장에 온 듯한 풍치를 느낄 수 있었다. 방문한 곳은 '애신보육원'과 '성화보육원', 그리고 공동탁아소, 학동보육을 하는 곳으로 잠시 돌아보았다. 이곳의 특징은 민족교육에 투철하다는 것이었다. 운동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사물놀이 등 우리도 잘 못하고있는 민속놀이를 매우 열성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규모는 다른 곳과 비슷하였으나, 성화보육원은 구조상 가장 규모가 좋고 보육하기에 적합한 형태라 여겨졌다. 그곳 원장의 말인즉, 이곳은 전에 유치원 등을 설계한 사람이 지은 것이어서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답이었다. 처음으로 잡채밥과 김치를 먹으면서 열심히 배우고자 하였으나 의욕과는 달리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여서 더이상의 질문이 입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저녁에는 그 곳의 실무자들과 회식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본땅에서 열성적으로 일하는 교포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가슴이 뜨거웠다. 멀지않은 기간내에 깊은 교사교류를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짧은 방문이었으나 우리가 느낀 점은 앞서 나간 일본에 대한 동경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와 우리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확인한 것이다. 자기자리에서 부터 출발하여 헌신적으로 활동에 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과정이며 결과라는 것이다. 다만 탁아사업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가늠해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동교육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우리는 항상 부족한 상태여서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일본에서의 보육내용이 (시설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유사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경험에서 오는 축적들이 매우 의미있는 것임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탁아시책에 관련하여 일본에서 벌어진 투쟁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매우 섭섭하지만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교류가 갖는 의미, 과장된 기대를 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과 연대감을 느끼는 데서 오는 뿌듯함이 성과인 것 같다. 조만간 이러한 만남이 전제회원에게 열려질 것을 기대하며 새롭게 자세를 가다듬어 본다.

어머니 큰잔치 평가 작업

- 어머니 큰잔치의 흥반은 자리매김을 위하여 !

지난 10월 11일 서울,경인 지역의 제5회 어머니 큰잔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편집부에서는 특집으로 어머니 큰잔치를 준비한 중앙집행위원회의 평가내용을 실는다. 이번 평가를 통해 이후 어머니 큰잔치의 방향성도 모색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평가회에는 정희연 부회장(집행위원장), 김선자(북부), 차현숙(중부), 김연숙(봉천), 권혜진(구로), 심선경(안산), 이주영(수원) 집행위원들과 최선희 사무국장, 서정은 문화홍보간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편집자 주>

01 전체적인 분위기와 진행에 대하여

희연: 각 지역에서 평가가 된 곳도 있고 아직 하지 않은 곳도 있는 줄 아는데 어머니 큰잔치를 준비한 중앙집행위원의 입장에서 이번 어머니 큰잔치에 대한 소감을 나누어 볼까요? 우선 행사장 전반 분위기가 문화잔치의 효과를 잘 살렸는지요.

혜진: 이번에는 각 지역에서 준비한 플랜카드와 중앙의 걸개 그림, 공룡 조형물, 주변 장식 등이 있었는데 교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엄마들이 탄성을 지르고 너무 좋아했어요.

선희: 전체적으로는 잔치분위기의 효과를 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나 무대는 조금 빈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대장치의 효과성을 드러내고 견고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걸개그림은 아이를 주제로 선택한 것은 무난하였으나 몇가지 면

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작기간이 짧은 탓도 있고..

희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번에 기획전시의 내용과 제작까지 하였는데 착상과 내용선정은 좋았다고 여겨집니다. 조금 더 크게 해서 보기 수월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나 그에 들인 집행위원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02 당일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후 어머니 큰잔치의 내용과 형식은?

선자: 문화잔치의 성격을 좀 더 부각시킬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각 지역의 문화역량의 결과로서 시화전, 판화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외의 지역은 지역발표로서 자신들의 참여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희: 아직까지 우리 엄마들은 읽는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듯합니다만 고려해 볼만한데요.

희연: 지역준비의 한 부분으로 자리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선경: 우리 엄마들은 동등한 참여속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어떤 지역은 시화전을 했다고 해서 지역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엄마들은 함께 참여하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희연: 서서히 당일 행사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로 접어드는데요, 개회식부터



말씀해주세요. 이후 점차 나아졌지만 개회식은 메끄럽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데..

선경:너무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가운데 시작하였고..

연숙:개회식의 과정이 어수선했음 보다는 행사의 분위기를 띄웠어야 하는데 살려내지 못한점이 있어요.

선희:이번 문화공연이 우리의 기획의도와 부합되었는지 묻고 싶군요.

노래선곡에 있어 정서에 부합되지 못했던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교사노래단이 아이들,여성을 포함해낼 수 있는 노래를 하고 노래마을의 경우 엄마들이 알고 있는 노래,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공연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전체:약간의 지루함이 있었습니다.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와 신나는 리듬이 부족했습니다.

희연:애초의 '보는 즐거움' '문화공연의 경험제공'등의 기획의도에 비추어 봤을때 이번 공연은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노래로 선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목적의식성과 대중들이 '좋아하는'일반적 정서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현재 목적의식적인 내용과 대중정서를 부합시킬 수 있는 형식이 있는가,두가지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고민되어야 하겠습니다.

선희:연세대 노천극장에서 국민대 노천극장으로 바뀐 상황에서 봤을때 차라리 마당극정도가 어떠했을까 생각합니다만.

선경:올해의 노래공연이 우리지역 엄마들에게는 신선함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공단지역에서 돈주고 시간내서 가기 어려운데 이런 계기를 통해 접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직까지는 노래공연의 형태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당극,연극 등에 우리의 내용,정서를 담기에는 더욱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연:내년의 경우 문화공연에 대한 사전조사가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보고 싶은지에 대한 조사 말입니다.

선자:문화공연 자체는 이후에도 살려내야 합니다. 방식과 형태는 좀 더 고려해야 되겠지만..

선희:자신의 문화적 욕구를 발산시켜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무리였어요. 어머니 문화가 갖고 있는 문제점,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문화에 대한 발굴,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목적의식성과 대중들이 '좋아하는'일반정서를 부합시킬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은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져야..

들의 차이를 알고 결합시켜 내려는 노력,적절한 배합이 필요해요. 마냥 뽕짝이 좋다 할 수도 없고 운동권 노래만 부를 수도 없고.

연숙:목적의식성과 정서의 결합은 '친숙함'을 가질때 비로서 풀릴 수 있다 여깁니다.저희 지역에서는 '아 민주정부'를 발표했는데 이를 위해 미리 이 노래를 테이프에 복사해서 엄마들에게 나눠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듣고 출퇴근시간에 가사를 외우다보니 나중에는 절로 신이 난다고 했어요.민주정부수립이라는 내용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많기에 이는 자꾸 접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영:구호선택과 노래 선곡등에 있어서 중앙의 선도성은 어느정도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지역의 사전,사후작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현숙:교사의 선도성이나 과도한 목적의식성의 표현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엄마들의 문화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이에 걸맞는 내용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래공연을 통해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대리전달코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매우



한계적일 수 밖에 없지요. 내부의 정서를 가장 잘 아는 내부에서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사노래단의 경우도 행사때만이 아닌 일상적인 소모임 등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희연:이번에 처음으로 기획된 '아빠들의 작은 운동회'에 대해서는 모두들 좋았다고 하네요. 신선함이 돋보였다는 평가들입니다.

선자:아빠들의 작은 운동회에 대해서는 대체로 좋았다고 여기지만 이어 마련된 지역발표는 문화적인 개성이 없었어요. 지역내에서 엄마들과 교사간,엄마들간에 문화적 교류속에서 같이 하려는 노력이 있는 가운데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연숙:지역발표의 경우 재미가 없다기 보다는 신선한 충격이 없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구로지역 자모의 경우 4번째 참여하는 분이 매회 같은 형식이라 진부하다고 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혜진:당일 지역발표를 하고 난 후 타 지역의 발표를 보면서 우리지역의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용 선정은 좋았으나 평면적인 구성과 형식을 탈피하고 보다 다양한 표현형식과 구성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더군요.

현숙:우리지역은 공단지역과 일의 차이가 있기에 정서에 있어서도 약간 다르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계기를 통해 지역간 의식의 교류가 가능하고 의식의 편차를 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자:이번 어머니 큰잔치는 문화잔치의 성격을 잘 살린 듯 합니다만, 우리 문화의 계발과 그에 걸맞는 프로그램의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부지역의 우리민요 부르기 등은 좋았다고 생각해요.

주영:지역발표에 우리 지역은 처음으로 나갔는데 불참한 자모들에 대한 사후작업과 함께 참석한 자모들이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의식을 갖고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상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진:이번 잔치는 기획에 있어서 욕심을 많이 부린 면도 있습니다. 아버지 참여독려와 문화공연에 대한 욕구충족,지역발표에 대한 기대 등..

선경:지역발표를 계속 이대로 하기에는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 엄마들은 아무래도 몸으로 자신이 직접하는 대동놀이에 더 신명나 하지 않습니까? 이를 볼 때 오전에는 문화공연,오후에는 체육대회 등을 하는 것은 어떨지..

정은:앞서 지적하신대로 현재에서 벗어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전체 성원들이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당일 발표로 인한 충족감을 체육대회 등에서는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희연:몇회째 계속해오던 방식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인 700명이 참여하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그러면서도 조직적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점차 발굴해 내면서 그 해의 좋은 면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머니 큰잔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운영의 세련성이 필요하다고 모두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선경:이번에 마련된 아이들 프로그램은 탁아방 배치에 있어서 영아에 대한 고민,자는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약품의 충분한 마련과 적당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대체로 무난했다고 생각되는데요.

희연:특히 바깥놀이에 대한 간단한 준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실내공연과 실외프로그램이 동시에 있어 아이들이 선택하여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말입니다. 날씨도 좋았고,바깥에서 놀기에 좋은 장소였는데..

혜진:대동놀이의 경우 자연스러운 진행이 부족했습니다. 원만들기는 너무 인위적이었고 노천에서 운동장으로 넘어갈 때도 매끄럽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선희:진행자가 대동놀이에 대해 너무 완결성을 강조했기에 참여인들이 느끼기에 자연스럽지 못한면도 있었어요. 대동놀이 진행패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하군요.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들어서 내년에도 같은 사람들이 좀 더 고민하여 진행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준비과정에 대하여

희연 :좋은 말씀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제생각으로는 지역위 준비와 중앙준비주체가 분리되어 준비한 것이 좋았다고

조직력강화와 연대의 의의가 있는 어머니 큰잔치의 중요성에 대해 교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생각합니다만, 왜냐하면 작년과 같이 중앙회의에 나오는 한 사람이 지역에 가서 또 지역준비주체가 되었을 때 받는 하중과 부담이 매우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주영: 저희지역에서는 중앙집행위원들과 회장단, 사무국 등 기획과 진행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수고하였다는 말을 전해 달렸어요.

(전체 웃음과 박수)

희연: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7차 회의까지 매주 한번씩 빠짐없이 나와주셨고 최선을 다해 행사준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역위원회 준비상황에 있어서 연결과 점검을 지역대표들과 여기에 나오신 집행위원들이 함께 하는 것이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대표자 회의를 통해 보고와 점검을 했습니다만..

선경: 실제로 기획과 점검을 하는 이 모임에 참여하는 집행위원이 지역대표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혜진: 올해는 중앙집행위원회를 뽑고 각 지역에서는 지역대표를 중심으로 지역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체계를 가졌는데 우리지역에서는 교사준비모임, 자모준비모임을 통해 준비하여 작년보다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준비와 중앙준비위원의 분리가 안 이루어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자: 저희 지역은 어머니 큰잔치와 연달아 바로 이번주 일요일에도 지역내 연대행사가 있어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정된 교사역량으로 부담도 심하고.. 하지만 지역에 무리가 되었어도 이 모임에 참여한 것이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만.

희연: 안양지역의 경우 중간 시기에 어머니 큰잔치 참석이 어려움을 알았으나 아무런 절차나 노력없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 문제였으며, 동부나 인천지역에 대해 집행위원장으로서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점검이 있어야 했다고 여깁니다.

선희: 이번에 중앙준비는 평균수준을 넘어 섰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에 비해 지역준비는 미흡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하다보니 일선교사들사이에서 관성에 젖어 준비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활동의 충실성이 당일참여에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중앙집행모임의 열기가 지역에 전달되었어야 했는데...

희연: 이번 어머니 큰잔치의 참여 인원은 어른이 약 700명 가량 되었지요? 팜플렛을 700부 찍었는데 모자랐던 것을 보아 잘 알 수가 있지요.

혜진: 참석인원에 대해 덧붙이자면 개회때와 오후 때의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는 노력이 아쉬워요. 저희지역은 하루종일 햇볕이 그대로 비추었음에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전체 웃음) 특히 몇지역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보는데요.

전체: 특히 경인지역에서 선진적으로 활동해오던 인천지역의 적은 인원 참여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선희: 이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별 탁아소가 10월에 자체 행사를 무리하게 배치한 것과 민간탁아연대 작업 등으로 인탁위의 지도부가 어머니큰잔치의 중요성을 소홀하게 여긴게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또한 올해는 장소자체가 가을의 정취가 물씬한 소풍의 분위기여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게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어머니대회는 대회적 성격으로서 집중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과는 다르기에 난 차이가 아닐까요?

선경: 그렇다기보다는 어머니 큰잔치의 중요성과 의의가 각각에게 절실하게 다가가지 못했다고 봐요. 조직적 성과와 연대의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교사들의 어머니 큰잔치를 준비하는 긴장감이 저하되었다는 데서 그 원인이 있는 듯합니다.

연숙: 앞서도 지적되었지만 준비 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교사들



의 긴장감 저하는 이번 행사가 대회성격이 아닌 잔치 성격인 데서 온 게 아닌가 싶어요

희연: 잔치의 성격에 그 요인이 있다기 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교사들의 활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을 듯 합니다. 단지 어머니 큰잔치라는 한 행사로 나타났을 뿐.. 지난 해 부천지역의 경우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고 별 준비없이 왔다가 그후 교사들끼리 많은 반성을 했었어요. 어머니 큰잔치의 전 과정은 교사와 엄마들이 결집하여 동질감을 느끼고 의식화, 조직화의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한 것이지요.

주영: 저희 지역은 당일 참석하지 못하는 자모들이 소품준비, 김치만들기 등을 하였습니다. 저희지역에서는 이번 잔치에 자모들이 대본 만들기 등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교사들은 어머니 큰잔치를 통해 평상시 자모회의 중요성과 자모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 큰 성과입니다. 특히 부천지역의 발표를 보고 지역내에서는 노래배우는 소모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연: 가족의 참여를 독려한 면에서 올해는 참여 인원면에서는 미흡했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준비과정에서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합니다. 즉 아빠들의 참여에 지역에서는 자신없어 하였으며, 잔치 막바지에 다가가 한번 권유해보는 식으로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정은: 계속 가족잔치의 성격을 살리려면 준비과정부터 아빠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선경: 어머니 큰잔치가 1년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한다면 지탁연내에서 어느 한 부서가 1년동안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행사

1년을 바라보고 지탁연내 각 체계가 함께 준비한 결실의 공간으로 어머니 큰잔치가 자리매김될 수 있었으면 ..

집행모임을 두달 전 정도에 꾸리는 것을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특히 아동교육분과가 1년의 논의 결과물을 기획전시 등으로 외화시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큰잔치 정도라면 전 체계가 함께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집행모임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행사 전날에 역할 분담하기보다는 미리 역할 분담하여 진행자원활동가들과도 손발을 맞추고 제작과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보니 결국 한사람에게 당일 진행의 책임이 지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앞서 지적하신대로 준비과정에서 교사집행모임과 자원활동가 집행모임의 결합력강화는 행사진행의 원활함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번에 자원활동가들도 교사들과 같은 체계를 가졌습니다. 중앙 진행자원활동가와 지역 탁아자원활동가들로 나누어 운용하였는데 지역 자원활동가들에 대한 교육과 점검이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중앙 자원활동가들이 평가하면서 나눈 얘기로 지역 자원활동가들이 능동적으로 아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중앙 진행자원활동가들이 당일 탁아도 일정부분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희연: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도로 기획되었던 이번 어머니 큰잔치는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낸 듯 합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장소의 조기 결정문제, 역량배치 문제, 지역발표에 대한 새로운 대안모색 등은 이후로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들로 남았습니다. 올해의 이 평가가 내년의 더 나은 어머니 큰잔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봅시다. 마지막 평가모임까지 빠짐없이 나와주신 집행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편집부 사정으로 인하여 기획 시리즈 '대선투쟁을 준비한다'의 두번째를 실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함께 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지탁연에 바라는 점, 지탁연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길'을 읽고 느끼신 점, 제안이나 격려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교사 여러분의 투고를 항상

기다 립 니 다 !!!

전국방방곡곡에 어머니 큰잔치 함성 울려

1. 전북지역 제2회 일하는 어머니 큰 잔치

전북지역 탁아위원회 주관으로 10월 3일(토) 전북대 정문 잔디밭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고유의 민속놀이 및 가족잔치의 성격을 띤 일하는 어머니 큰 잔치가 열렸다. 전 탁위는 어머니 큰 잔치의 목적을 1년

의 애교와 자모들, 자활가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인 어머니 큰 잔치는 전북지역 탁아위원회의 년중 사업중 가장 비중이 커다란 규모의 중요한 사업이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조직역량강화와 하나의 사업을 통해서 지역내에서 탁

아운동의 뿌리를 내리는데 목적이있다'라고 설정하였다. 입장식에 이어 어린이 재롱잔치인 소고춤과 교사와 어머니가 함께 한 촌극을 했고 점심시간 이후 씨름, 꼬마야 꼬마야, 화살던지기, 닭싸움, 박터트리기, 줄다리기등



2. 서울·경인지역의 제5회 어머니 큰 잔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주관으로 10월 11일(일) 국민대 노천극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모, 아동, 교사, 자원활동가, 후원인 등 약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머니 큰 잔치가 열렸다. 잔치 펼침은 구로지역을 선두로 각 지역의 깃발입장으로 시작하여 개회선언과 성남지역 공동자모회장 신청자 자모의 개회사와 최현숙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어서 '노래마을'의 노래공연과 점심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부터 아동을 위한 비디오 상영과 인형극단 해바라기의 공연이 있었고 노천극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순서가 마련되었다. 아빠들의 작은 운동회, 각 지역의 아빠들이 준비해온 노

래로 뜨거워진 분위기는 다음으로 이어졌다. 각 지역 자모들이 준비해온 발표는 각 지역에서 준비해온 구호의 외침과 각자 준비해온 개사곡의 내용 속에 탁아소와 엄마들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과 탁아소가 안고 있는 현 문제점들을 표현했다. 대동놀이 한마당은 풍물공연과 강강수월래, 박터트리기를 통해 지탁연 가족이 모두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순서였다. 참여인들은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깃발아래 다시모여 결의를 다지며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옮기고 이날 행사는 막을 내렸다.



3. 제4회 부산지역 탁아소 가족 한마당

부산지역 탁아위원회 주최로 10월 18일 (일) 수산대학교 소운동장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제4회 부산지역탁아소 가족 한마당을 열었다. 행사는 크게 세부분으로 여는마당(길놀이, 고사, 개회선언, 탁아소 소개, 떡볶이, 피자, 떡볶이, 떡볶이), 신나는 놀이마당(제기차기, 줄넘기, 꼬마야 꼬마야, 줄다리기, 족구, 배구, 장애물 이어달리기), 점심, 하나되는 마당(문화공연, 박터트리기, 강강수월래)으로 나누어 열렸다.



탁아소 별곡

탁아소 생활에서 기억나는 것, 두가지

전 미경 (구로 세터 어린이집)

탁아소 생활한지 몇 달 있으면 3년을 채운다. 약간은 정제되어 있는 듯한 우리들의 생활속에서 활력을 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음..

그것은 각자 스스로 찾아가야 할 생의 모습일 것이다.

그동안 세터에 있으면서 기억나는 일은 아이가 다쳐서 놀았을때, 최근엔 민간탁아소를 방문했을때 일종의 경각심을 갖게 해주었다.

1991년 가을.

교사는 아이들이 우발적인 행동을 하여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게된다. 그래도 아이들은 아이들인지라 사고는 간혹 일어난다.

그날도 잘 놀고 있었던 애들한테서 '썩그랑'하는 커다란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 너무 놀라 달려갔더니 유리창을 발로 차서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고, 아이는 겁을 먹었는지 울지도 못하고 아픔을 표시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일곱살 애를 병원으로 업고 뛰었다. 발목의 상처는 유리조각들이

살속에 있어 그 찌꺼기를 꺼내는 소독 치료를 하는데 그 아이가 신음하며 소리치는 것을 문밖에서 듣고있자니 가슴이 저미도록 아파서 눈물이 저절로 나왔다. '얼마나 쓰라리고 고통스러우면 저럴까? 내가 대신 아파주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과 엄마들은 우리 교사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줄이며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1992년 초가을날.

구로지역내 민간탁아소 실태조사를 위해 민간탁아소 실태조사서를 들고 우리 근처에 있는 000 탁아방을 방문했다. 미리 전화를 하지 않고 찾아갔는데도 친절히 질문에 응해주었다. 교사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그 놀이방을 돌아보았는데 공간은 우리보다 훨씬 넓고 평소에 자원봉사 아줌마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실상 그렇지 않았다. 원장(휴가여행중)과 교사1인(21세)과 취사담당 아줌마 한분이 20-25명을 보육하고 있는 것이다. 15-24개월 사이의 아동들이 20여명 되었는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아이들의 표정이었다. - 발랄하고 해맑은 표정이 아니고 무표정 초점없는 눈을 가진 축 처진 모습이었다.

세삼 '아이들을 돌보는 탁아활동이란 바로 아이들답게 해맑은 모습을 갖고 즐겁게 생활하게 하는 것'을 인식하였다. 우리아이들에게도 더욱 재미있는 놀이와 교사도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놀이지도 방법을 계속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민간탁아모임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지탁연 활동이 더욱 질적인 발전을 꾀해야한다. 다른 민간탁아소가 (놀이방) 우리보다 열악한 조건으로 운영되는 것도 서로 힘을주며 함께하는 길이 그 무표정의 환경에 처한 아동을 구출하는 것이 될 것이다.

● 필자 소개 : 전미경

88년 11월부터 기독교민회 회원으로 활동 중. 90년 2월부터 새터 어린이 집교사로 활동, 현재 새터 어린이집 다담취반 (생후24개월~36개월)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 신문속에 세상이 보인다. ☆●○○◎◇

정치의 진짜 실상은 여기에 숨어있다.

신문의 정치면에서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려는 독자에게는 그날의 흥미있는 주제만을 쫓아 해매는 즉석식 독서태도에서 탈피해 자신이 주목하는 주제를 매일매일의 변화를 중심으로 점검해내려는 적극적 독서태도를 기르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향후의 정국을 예측하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어떠한 정치현안에 대해서 어느 세력이 어느 수준의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의 정보는 정치세력간의 타협과 협조로 향후 정국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장외정국으로 발전하면서 강경, 파국, 위기정국으로 나아갈 것인지와 같은 정국의 파국정도를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 현재 집권층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찰, 치안본부, 안기부 등

의 공안당국의 수사발표 수준을 점검한다. 비교적 정부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몇개 신문의 야당의 향후 정치적 대응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성명' 발표하는 형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비공식적인 코멘트만 있는가, 부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는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는가, 당 총재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동시에 어느 수준의 성명서가 나오는가, 발표하는 장소는 어느 곳인가에 따라 향후의 정치적 대응정도가 판이하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관찰하면 여야 중 어느쪽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정국이 돌아가는 가도 대체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소식과 소식

연합회 소식

〈 민주당 여성특별위원회 주최 '여성정책 토론회'에 본 회가 토론자로 참여 〉

10월 12일 오후2시부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600여명이 참석하여 민주당 여성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본 모임은 민주당내 여성정책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위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전체적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대안을 내놓고 확인받는 자리였는데 정책안 중 중심적 사안으로 상정된 네가지 안에 대한 토론자 발표가 있었다. 먼저 이우정(여성특별위원장)의 인사 및 민주당 제기가 있었고, 이어서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씨의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안'에 관한 토론, 본회 회장의 탁아정책에 대한 견해, 이영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회장)씨의 여성노동정책에 관한 토론, 그리고 조정순 (대한 영양사회 회장)씨의 학교급식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민주당은 각 토론자의 발표를 토대로 여성정책안을 재검토하여 올릴 계획이라 한다.

〈 '21세기 영유아보육사업을 위한 심포지움'에 본 회 토론자로 참여 〉

'21세기 영유아 보육사업을 위한 심포지움'이 부산에 있는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회장 임재택,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과 삼성복지재단의 공동주최로 부산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10월 16일, 17일 양일간 열렸다.

기념강연과 다섯가지 주제로 발표된 본 심포지움은 탁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 토론자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일선 원장, 교사, 교육생들 그리고 관련단체, 행정 담당자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심포지움의 일정을 마친후 공동결의문을 장단기적 요구사안으로 채택되어 관련부서에 보내기로 결의하고 해산하였다.

본 회의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이 심포지움의 첫번째 주제인 '현행 영유아보육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김정자(여성개발원 부원장)씨의 발제에 대하여 토론 발표를 하였다. 심포지움 자료집 '21세기 대비한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의 발전방안 모색'은 연합회 사무실에 있다.

< 한국여성단체 연합 활동에 참여 >

-- 선거대책반 활동 --

대선을 앞두고 여연에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안 마련'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 작업은 선거대책반을 구성하여 1)여성정책에 관한 대통령 후보초청 간담회 2)여성단체간 '10대 여성정책과제' 공동제안 3)여연 단위의 여성정책 자료집 발간, 4)대중홍보용 전단,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여성유권자 행동지침'을 제작할 예정이다. 본회는 여연 선거대책반 활동에 결합하여 민주대연합을 통한 민주정부수립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제반활동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여성정책과제 중 탁아정책에 대한 올바른 내용 적극 선전하고자 한다.

-- 여대협 간부 초청 간담회 열려--

지난 9월 25일 각 대학의 총여학생회 간부를 초청하여 여연 내 제단체들은 간담회를 갖고 여대협과 여연과의 올바른 연대를 위한 상호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 사안별 연대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본회는 여연이 주최한 여대협 간부 초청간담회에 참가하여 총여학생회 사업으로 탁아활동과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당부하였고 사회운동으로 이전할 때에는 탁아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다.

-- 정신대 문화제 개최--

여연은 지난 10월 17일 서울 탑골 공원에서 '정신대 아리랑'이란 제하의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는 정신대 문제를 범 국민적인 문제로 확산하고, 정신대로 끌려가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며, 최근 문화, 경제적으로 침략을 노골화하고 있는데 맞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정신대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 >

-- 단체장, 실무자 연석회의--

지난 9월 28일 정세인식과 이후 방향논의를 위한 단체장과 실무자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로 의료보험노동조합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정세의 변화에 따른 국회의 움직임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공청회 마무리를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한 구체화작업과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대선에 각 단체 공약

화할 내용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회에서는 회장과 양은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사대위 간부 수련회 --

10월 2,3일 양일간에 걸쳐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토론회와 지난 공청회 및 발족식에 대한 평가로 관련자들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회는 간부수련회에 회장단, 지역 개특위원장, 정책연구부원등 9명이 참석하였다.

-- 대선 정책모임--

사대위에서는 대선 정책모임속에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 개최를 놓고 각 단체의 질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본회는 총 10개항으로 구성된 탁아관련 질의서를 작성하고 탁아관련 공약사항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 제3회 아동관 토론회, 현장교사들의 호응속에 열려 >

10월 14일 제3회 아동관 토론회가 본 회 교육실에서 열렸다. 이번 주제는 '놀이'로서 '좋은 놀이는 노동의 준비이다'라는 철학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특히 교사들의 호응과 관심에 힘입어 아동관 토론회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면에 이후의 아동관 토론회에서는 발제와 함께 한 토론이 좀 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차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는 교육연구부와 아동교육분과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후에는 더욱 알차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 대선투쟁을 준비하는 첫 걸음, 교사정치토론회 열릴 예정 >

10월 21일, 오후 6시부터 본 회 교육실에서는 교사조직분과와 대선투쟁본부가 '대통령 선거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는 주제아래 교사정치토론회를 갖는다.

지역위원회 소식

<북부>

개특위는 9/17 모임:활동점검과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세웠는데 지원선 정해서 접수, 개특위 관련 연대사업 재개하고 자모들에 대한 교육과 방문에 대해 논의. 9/28 모임: 북부지역 자모소득 통계속에서 월소득 80만원 이하와 월세 300만원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하고 각 집 자모회에서 지원선에 대한 검토 후 다음 모임에서 지원금 활용방안 검토기로 이번달 중으로 지원신청서 낼 예정임.

연대사업으로는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주민 한마당'으로 10/18 미양국민학교에서 노래자랑을 한다. 준비단체는 삼양지역모임의 민주단체 및 개인이고 참가 인원은 천명을 예상하고 있다.

<동부>

9/30 한양대학교 초청잔치에 세곳의 탁아소에서 아동이 참가
개특위는 그동안 진행된 지원투쟁의 평가와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

<부천>

9/21 개특위 모임- 상반기 활동일지 평가(개특위원 구성의 문제검토, 개별탁아소사업과 개특위사업 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지원이 되지 않는 1탁아소(시흥지역 한울)에 대한 조직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반기 활동방향과 계획 수립, 민간탁아소연대를 위한 조직적 기틀 마련, 민탁연대를 위해 민탁의 요구조사, 아동지원 상황파악

9/23 부민협 정치교실 참여-교사2인

9/24 월례회의-어머니 큰잔치 준비 상황 검토, 체육대회 대체 아동 행사는 각 탁아소별로 실시하기로 함.

튼튼이 공부방 개소하고 신진교사 장명옥

새롬 바자회 열림. 롬비니동산과 새날탁아방이 통합하기로 함. 신진교사 박부자씨.

10/7 관계공무원을 통해 가능한 선에서 실태조사하기로 함(아동지원현황과 내년도 예산 책정에 관한 것, 민간탁아소 운영실태) 부탁위 내의 탁아소 아동지원은 새롬어린이집은 인가증 나옴, 한울어린이집은 시에서 소득조사 나옴

10/14 부천민주단체협의회 1주년 기념식 참가

<구로>

분과활동- 교사교육분과는 10/16부터 5회에정도로 교사교육실시

9/5 월례교육강좌로 '나는 여자, 얼마나 알고 있나'의 주제로 교육.

아동교육분과는 꾸러기동산 윤진숙교사를 분과원으로 보강함. 현재 3~4세 교육계획안 준비하고 있으며 문제 행동사례집 활용하기로 함.

개특위는 지역민간탁아 실태조사와 분석(7개소)

민간탁아연대에 대한 문제제기(실태조사 분석결과와 함께 재논의 들어감)

민간연대 추진 방안에 대한 의미 나눔.(소모임 형식으로 친목도모와 정보 교류, 공동사안 있을 때 연대하자. 전망과 대안을 갖고 모임 구성하자)

운영위-지역대선 준비모임은 운영위가 맡고 10월 중순에 논의 들어가기로 하고 담당은 새터어린이집 남미영 교사

새터 어린이집 정부지원금 중 5%를 지역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함.

9/29 월례회

새터- 영아반 교사 이선민 사임, 후임으로 이현미 교사 10/1로 근무

바자회 10/31~11/1

튼튼이- 김숙자 교사가 온누리에서 튼튼이놀이방으로 10/1자로 근무

바자회 10/25

온누리 -바자회 10/3~4

꾸러기 동산 -노동자 가요제 (9/20)때 김밥 판매

구로구 어린이집 원장모임에 새터어린이집 참석

<안산>

10/2 지역아동 공동알밤 소풍이 용인 자연농원에서 오전 10시에서 3시까지 열려

지역에서는 (가칭)통합공과금 중 TV시청료 제외를 위한 안산 시민 대책위 참여 이후 사업계획으로는 10/20 대표자회의 :대선관련 교사교육방안 논의

10/23 월례회: 대선 대책본부구성과 대선 방침 논의 10/24 민간탁아소 모임

이후 자모교육을 위한 강연회 준비모임을 결성하여 (자모, 아동교육분과를 중심으로) 10월 중으로 실시예정임.

<인천>

9/18 탁아소 대표자 회의

아동교육분과-10/2분과 엠티, 교사교육분과-풍물 소모임이 어머니 큰잔치에 결합기로, 자모조직분과-어머니큰잔치 준비 주관,

안전으로 어머니큰잔치 보고, 준비할 사항 점검과 민간보육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간담회 경과 준비사항 경과 보고

9/25 임원회의 -각 분과 사업계획과 점검, 탁아소, 회원 관리 점검

9/26 인천시 부녀복지회관에서 민간보육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간담회 열렸음.

9월 월례회와 임시총회-임시총회때 회장 보궐선거로 김동주교사가 선출됨.

성폭력 추방과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가두서명 운동 참여
 9/29 지역개특위-간담회 평가, 민간보육시설 협의회 준비위 결성 및 방향 논의
 9/30 어머니큰잔치 준비 모임 10/1 간담회 평가모임
 10/2 임원회의, 아동 교육분과 합숙 훈련
 10/9 탁아소대표자회의
 10/10 민간보육시설 운영협의회 준비모임
 10/13 지역개특위 모임 -93년 예산화보에 대한 원칙 확인
 10/16 임원회의
 이후의 활동으로는
 10/23 탁아소 대표자회의 10/24 10월 월례회의 10/27 지역개특위

<대전>

9/20 가족 소풍을 대청댐으로 갔다와
 9/21 언어발달에 대한 교사교육
 9/22~24 충남대 학술제 기간 수익사업
 9/26 신탄진에 새로운 탁아소인 '즐거운 놀이방' 기금마련 일일주점
 9/27 샘골 놀이방 이전 (이전 주소는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31-41 3/4, 전화 번호는 전과 같음)
 9/24 '아동 언어습관과 발달에 따른 부모의 역할'에 대한 자모 교육
 대전시 대덕구 구의원이 놀이방을 방문하여 후원회와 간식비 등 시설 지원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하여 고민 중.

<부산>

#부산 아동교육분과와 자모분과는 분과장들의 변동으로 인하여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개특위에서는 부산지역의 대다수가 무허가로 인하여 탁아소의 신고가 안되는 현재 상황속에서 '미인가된 탁아소에도 아동지원하라'는 요구를 갖고 다양한 작업을 고민 중임.
 # 9/20 부산 걱정모임에 참여 (민간보육, 가정보육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 걱정모임이 모인 후원금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부탁위에 후원키로 함)
 9/20 여성단체장 모임에 참여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한 결과 '여성의 요구'를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으로 열기로 결의함)

10/18 제4회 탁아소 가족한마당 준비중에 있음.

<강주>

#우리동네 아기둥지는 기차여행 (9/18), 전남대 유아교육과 교재, 교구전시회 견학 (/25)발산교회 창립 기념일 5주년 기념식 (/27)이 있었으며, 9월부터 문자교육을 하기로 하였고 도담도담아기둥지 임원자모초청하여 '자모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교육을 하였다.
 우리동네 전삼순교사는 10/5~10까지 서울에서 보수교육받기 위해 상경기로.
 10/23 아기둥지 창립기념일
 #도담도담아기둥지는 전남대 유아교육과 주최 인형극공연 관람 (9/25) 조선대학교 총여학생회 주최 학교 방문 (/28)
 #광탁위는 9/20 남광주지역 연대모임에 참여하여 연대모임 소속 단위에 대한 내용공유와 대통령선거에 대한 투쟁활동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0/3 광주지역의 공동나들이

년중 캠페인 : 전국의 소식을 풍부하고, 빠르게 !!

각 탁아소와 지역위 소식이 영양가 있고 풍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위원회 소식란이 너무 건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읽다보면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 묻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 대표님!! 지역 통신원이여 !!
 알릴 권리가 있고 알 권리가 있는 '함께'길'에 소식을 주세요 !!!

인천시 민간보육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간담회 열려

지난 9월 26일(토) 오전 10시, 인천시 부녀복지회관에서는 인천시의회 문교사회분과 후원으로 [인천시 민간보육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경과보고, '인천시 민간보육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제언' 기조발제, 아동교육 환경 및 질개선을 위한 제언, 민간 보육시설 현황과 개선해야 할 사항,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례발표와 시청공무원, 시의회 의원 발

언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인천시 민간보육시설 40개소에 참여하였고 인천시의회 문교사회분과 시의원, 시청관련 공무원, 타지역 민간보육시설(구로, 안산) 참여하여 많은 관심과 지지속에서 진행되었다. 자발적인 민간보육시설 운영자들이 만나는 자리로 그동안 교류할 수 있는 장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었다.

(인천지역위원회 김동주)

모임과 모임

< 지역대표자 회의 >

9/22 지방지대의 (마산 불참)

어머니 큰잔치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전제포스터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서울 어머니 큰잔치에 참여할것을 논의하였다. 지방 개특위구성에 대해 각 지역의 준비상황을 논의하였으며 10월 13일 준비모임을 거쳐 확정짓기로 하여 지방 개특위에서 중앙과 지방의 개정활동의 보조를 맞출것과 지방의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하였다. 서울경인의 민간탁아연대작업에 대한 제안서를 검토하고 지방의 민간탁아소간 연대작업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지방에서는 각 지역의 상황에 준하는 연대의 기초를 마련하고 내용을 고민하기로 하였다.

10/1 서울 경인지대의 (봉천, 안양, 성남 불참)

지탁연의 대선투쟁본부의 창설에 관하여 논의하여 본부의 위원을 선정하고 이후 정책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어머니큰잔치에 대하여 총점검하고 지난 사대위 발족식과 공청회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하였다. 이속에서 지대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되어 이후 지대의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선에 즈음하여 탁아정책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내에서 점검기로 하였다.

10/15 서울 경인지대의 (안양 불참)

대선투쟁본부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정책소위에서 제안한 것을 받아들였으며 지역별 대선전담구조를 10월중에 구성할것과 중앙자모조직분과에 각 지역에서 1인씩 파견하여 대선시기 자모교육의 내용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 결의되었다. 중앙개특위에서 '개정활동의 청사진을 마련하자'라는 제안서를 검토하는 과정속에서 이후 지대의에서 재 논의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들의 목소리

꿈동산 어린이집이 문을 여었습니다.

유이너 (수원 꿈동산 어린이집)

처음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수원에 탁아소 준비모임을 구성한것은 92년 5월초순이었는데 5월말에 내 아이 바다가 태어나고 6월초순에 준비모임을 같이 하던 분이 민이를 낳았다. 탁아소를 운영해야 한다고 시작은 하였지만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아이를 가진 주부가 둘씩이나 되고 애를 둘가진 주부가 한분, 미혼이 한분으로 준비모임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닥쳐올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답답한 심정도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서 일을 해온 주변동료들로 후원회가 조직되었고 탁아소공간이 9월초순에 마련되어졌다. 9월19~20일 양일간에 벌였던 알뜰바자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함과 더불어 지역의 여러 단체들의 참여속에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을 한지 한달여 지난 지금 돌이켜보건대 무척 바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기간이었다. 아이들이 9명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지 않으려고 울던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며

손을 흔든다. 서로 싸우기만 하던 애들이 이제 몇몇이 짝을 지어 놀기도 하고 선생님뒤만 졸졸 따라 다니는 병아리도 있다.

바쁜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조금씩 나아져가고 아이들이 선생님과 잘 적응해 나가는것이 무척 기쁘다. 특히 우리 바다와 민이가 벌써 5개월로 접어들면서 곧잘 눈웃음치고, 큰 형아 언니들이 떠들어도 잘 자고 잘 노는게 다행이다.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민이 엄마나 회경선생님의 헌신적 노력과 향숙언니(정연엄마)의 도움과 우리를 후원해주는 여러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더해감을 느낀다. 이제 시작이지만 전국의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고, 이땅의 일하는 엄마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은 힘이나마 열심히 모든 지역의 탁아소와 함께 일을 해 나갈것을 우리 꿈동산 선생님들은 다시 다짐한다.

사고, 팔고, 알리는 모든 것을 실어드립니다. 지탁연 베품시장을 많이 이용 해 주세요. 광고비는 당분간 받지 않습니다. 광고문의는 사무국으로

최인옥 (전주 일터어린이집)

1992년 10월.

가을의 시작과 더불어 홀로서기(?)에 다시한번 마음을 다지던 우리들은 '어머니 큰잔치'라는 커다란 숙제를 받아들이고 마음이 무거웠다.

가을인데..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초조해진 우리들은 부서를 나누고 각자가 맡은일에 바빠 움직였다.

자활학생들과의 계속되는 전화연락과 만남, 아이들의 소고춤 연습, 물품준비, 촌극연습, 2-3일 간격으로 계속되는 준비 모임 ..

어느덧 다가온 10월 3일! 비가온다는 기상대의 예보에 마지막 촌극연습과 행사일정을 점검하고난 저녁 12시, 집에 돌아와서도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질 않았다.

다음날, "햇별은 쟁쟁, 모래알은 반짝.."

비는 커녕 따갑게 내리쬐는 햇별 아래에서 우리들은 한숨을 돌리고 행사를 진행했다. 입장식, 아이들 소고춤, 민속놀이마당, 대동놀이에 이어진 시가행진!

'탁아예산확보는 엄마,아빠 단결로' '교사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라' '우리들이 낸 세금을 아이들에게' '우리살림 알아주는 서민대통령 뽑아주자' 등 등.

이렇게 쓴 상자조각과 대나무에 엮은 녹색깃발들을 손에 들고서 엄마,아빠,아이들이 함께 거리로 나설때는 마

음한쪽이 뭉클함을 느꼈다.

특히 5살난 작은아이가 우리의 요구를 담은 상자조각을 머리에 얹은채 팔 한번 내리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이란..

가을이라는 스산함에 힘겨워했던 이번 어머니 큰잔치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어린이잔치에서 얻었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력을 발휘해 훌륭히 치를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어린이 잔치때 징징 울며 엄마결을 떨어지지 않던 아이들이 이번엔 부모님 앞에서 의젓하게 서서 소고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다는 생각에 가슴 벅찼다. 또한 많은 아버지들의 참석은 우리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행사가 끝난 지금.

매일 저녁 늦던 귀가시간에 익숙해진 탓인지 아이들을 보내고 청소를 마친 후 집에 돌아가려면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낀다.

그러나, 곧 12월에 있을 아이들 재롱잔치 준비로 우린 또다시 늦은 귀가를 하게 될 것이다.

임남희(안산 진달래 동산)

탁아소를 시작한지 햇수로 3년.

학생신분으로 탁아소를 안 후 사회인으로 탁아소 교사가 되었고 이제 아홉마가 된지 어언 한달째이다.기혼남성에게 결혼 이후 최대의 책임이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 같은 활동가의 결혼 이후 최대 책임은 결혼생활과 현장활동을 둘다 잘 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힘든 것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몹시 바쁘고 일에서도 벼룩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배들이여! 이 혼란의 늪에서 벗어나는 묘법을 가르쳐주시길).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내일 일의 준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뒷머리를 긁적거리기도 수 억번(?).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주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기혼여성들 벼룩거리는 걸 처녀때 비웃었던거 반성하면서).

뭐,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고 바쁜것만은 아니다.우선은 안락한 생활근거지 확보가 제일가는 장점이고 또 평생 같이 놀아줄 사람이 마련(?)되었다는 더 훌륭한 장점이 결혼인것 같다.

잘 맞지 않아서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하지만,일이 힘들다고 입 내놓고 투덜대지만 어찌하랴! 이미 었질러진 물인데.. 후회해도 소용없고,울어봐도 소용없고(웬 노래가사냐) 행복하게 사는 수밖에 없다. 그래,길은 이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오늘도 신랑길들이기의 쟁구를 요리조리 굴려서,저 뽕수의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가사노동에 투입시키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

올해의 민족의 염원인 민주정부수립보다 가정의 민주화를 더 빨리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내가 권하는 책 - '떠나가는 노래'

이정희 (편집부)

'떠나가는 노래'는 요즘 내가 '닥터노먼 배순'과 함께 주위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책이다. 내가 이 글을 다른사람에게 권한 이유가 뭘까?

너무도 섬세하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를 속속들이 글로 표현해 놓은 점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공감이가득 때문이다. 또 이제까지의 문학속

에서 여성문제는 피상적으로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남성작가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 대다수였다고 할 때 이 책은 여성의 삶의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고 철저하게 여성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몇 안되는 책인 것 같아, 우리문학과 여성운동의 자리매김의 성과가 아닐까 하는 반가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 이 소설에는 '한 여자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도시빈민 가정에서 태어난 이 해옥이라는 여자주인공의 성장기와 결혼생활을 담고 있다. 해옥의 성장기에서의 주요 갈등과 물음은 우리사회의 가난한 집 장녀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자신의 학업을 어린나이에 포기하고 가족부양과 남동생의 학비 뒷바라지를 책임지게 되는데 '이것은 과연 미덕인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해옥은 갈등을 하지만 결국 자기 삶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에게 '착한여자'라고 비쳐지기를 원하는 마음과 반항이나 거부를 했을 때 자기에게 떨어질 지 모르는 손가락질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가끔은 자기에게 씌워진 굴레를 의식하고 때때로 그것의 정당성을 의심해보지만 해옥의 소심함은 그것을 박차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

해옥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자라왔다면 나는 사랑에 대해, 인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 여자로서의 성적모순에 대한 자각과 자기 삶에 대한 주체적인 자세, 의지를 가질 수 있었을까?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나 자신은 기층 여성들을 만나 그들이 스스로 처한 위치에서 여성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하는 일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나는 얼마나 피상적인 접근으로 그들을 깨우치려 했을까 생각하니 우스웠다.

이 작품속에는 해옥이외에도 현실속의 성모순에 대해 인식과 대처방법이 약간 다른 여러 유형의 여성이 등장하며 해옥에게 이러저러한 성찰의 계기를 준다.

해옥은 공장선배 복순의 공장에서의 일을 하며, 미순의 조합활동을 보며 여성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것은 단지 성적인 억압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남편의 외도로 인해 해옥은 가족구성원 모두와의 갈등, 또 자신의 삶에 대한 갈등을 가지며 소설을 끝을 맺는다.

해옥의 극적인 자각이나 뚜렷한 대응을 제시하지 않고 끝맺음을 지었던 것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많음을, 여전히 계속되는 굴레를 말하려 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해옥의 딸을 통해 어머니를 딛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지금은 인고와 자기희생의 어머니 시대도 지나고 그것의 잔재로 자신의 삶마저 황폐해져버린 중간적인 단계의 해옥의 시대도 지났음을 보여준다. <현대문학>

문화단신

<연극> 성폭력에 관한 연극 세편을 소개한다.

★ 극단 천지의 <셋! 호루라기 소리가..>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인 측면, 그 중에서도 '교육'의 문제에서 그 출발점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연극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가정, 학교, 사회의 교육과정을 통해 얼마나 왜곡된 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섯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여자는 '예쁘고 깨끗해야 하고 언제나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여자다움]과 '울지도 말아야 하고 여자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어야 한다'는 [남자다움]을 교육받는 유치원 생활, 여성의 순결교육만을 강조하는 중, 고등학교의 성교육시간, 그리고 가족의

여행문제에 대해 온가족의 의견보다는 남성 그것도 아버지의 의견만이 일방적으로 존재하는 가부장적 가정의 모습, 과소비와 사행심을 조장하는 TV의 주부프로 및 여성상품화 광고 등 매스컴을 통한 사회교육의 왜곡성, 여성들에게 조장된 신체, 성, 신데렐라 콤플렉스, 마지막으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가족, 친구, 매스컴 등에 의해 어떻게 파멸되어 가는가를 진지한 자세로 보여주고 있다.

10월 2일부터 25일(오후 4시30분, 7시30분)까지 예술극장 한마당 (762-7320).

★ 김보은. 전관사건을 소재로 한 <마굿간>

'마굿간'이란 제목은 작가가 '근친강간에 의한 성폭력이 단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우리사회가 성범죄의 온상임을 상기하고 마굿간을 청소하듯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범죄를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붙인 것이다. 연극은 김보은양 (극중 미라)과 김진관군 (극중 건석)이 외갓아버지 김영오(극중 권과장)를 살해한 후 경찰에 자수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부둥켜안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성폭행장면의 지나친 부각이 흠이다. 10월 31일까지 미리내 소극장(745-8535)에서

★ <메조리 전쟁>

메조리라는 여인의 강간 미수사건을 토대로 성폭행을 당하고도 증거와 증인의 부재로 인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실정법의 한계와 맹점을 파헤친 작품이다. 미국의 현대작가 중에서 날카로운 사회풍자로 유명한 윌리엄 마스트로시모네의 대표작이다. 바탕골 소극장에서 10월2일부터 공연.

문화단신이 도움이 되나요??

<영화>

서울 YMCA '전전비디오 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서울 YMCA 강당 및 친교실에서 '좋은 비디오 3백 60편 전시와 판매행사'를 마련한다.

<강좌>

서울 여성노동자회가 '성과 사랑'이란 주제로 제5기 여성교양강좌를 연다. 첫번째 강좌는 성과 사랑의 생리학 (10월 19일 7시), 두번째강좌는 성과 사랑의 심리학 (10월 28일 7시). 회비는 여성관련 교재와 함께 2천원이고 여성복지회관 (867-0516)에서 있다.

각 단체나 학교 등에 '비디오 영상자료실'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기획한 데 판매되는 비디오 테이프 가격은 7천원-9천원선 (한정판매, 10월30일까지 접수 735-1618)

참고로 두번째 강좌는 남성과 여성이 갖는 심리적 특성들을 분석해봄으로써, 이제껏 피상적이고 단순하게 알아왔던 각 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에 기초한 올바른 남녀관계를 모색해보는 내용이다.

지탁연 베품 시장

*참교육사는 지탁연 산하 탁아소에 다음과 같은 물품을 공급합니다.

(_)는 공급가격, 연락처는 사무실 (02-838-3296)

우리네 아이들 테이프 (2) : 2500 (1800원)

숫자(글자) 맞추기세트 : 3500 (2000원)

사랑따지/꿈따지 : 1장당 250원 (150원)

불록따지 : 1장당 500원 (300원)

*보육프로그램 1절 4만원, 자장가 테이프세트 4천원, 국악동요 테이프세트 7천원.

* 구로지역 구로 놀이방은 진짜 참기름을 판매합니다. 한병에 8천원
온누리 놀이방은 인형을 팝니다. 곰인형등 1천원

*인천지역 골목어린이집 10월 24일 일일주점

햇살 어린이집 10월 31일 현웃바자회, 일일주점

- * 동부지역 오손도손애기방 10월 25일 주민노래 한마당 이웃돕기 하루장날
- * 본 회 사무실에는 교육방송노조에서 모아준 이면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 그림종이로 사용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네 아이들 테이프, 지난 6월 24일 요구대회 테이프, '우리네 아이들 사진'을 찾고 있음. 빌려가신 지역은 속히 반환해주세요.

편집부에서

죄송합니다. 이번달 '함께'길'이 늦게 나왔습니다. 소식지의 생명인 신속성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늦게 나왔더라도 되도록 빨리 각 지역의 교사분들께 당도하였으면 합니다.

'함께'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기획이나 특집거리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매 달의 내용에서 가장 좋았던 혹은 별로였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주세요. 편집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난달에 실은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합니다. 첫번째로는 지역위원회 소식의 분량에 있어 고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철저하게 지역대표님들께서 작성하신 보고서에 의하여 만들어짐을 밝힙니다.

두번째로는 '함께'길'이 재미면에서 너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역 교사 여러분의 생활이 현장감 있게 다가올 때 어느정도는 보완되리라 생각합니다. 지탁연가족의 생활나눔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큰잔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함께'길' 작업이 시작되었다. 축 늘어져 다른 호보다 신경을 덜 쓴 듯하다. 다른 편집부원들이 더 많이 애를 써주었고, 미안한 마음 뿐이다. 난 왜 이럴까? 발간 날짜도 못 맞추고 교사여러분께도 또 미안한 마음, 난 정말 왜 이렇지?

(회연)

'만나보았습니다' 취재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매호 원고를 쓸때마다 고치고 또 고치고, 조금씩 나아지겠지. 다음호에는 조금 수월한 취재 대상을 만나게 되기를

(정희)

탁아소의 유일한 낙인 쉬는 날마다 사무실에 나와 소식지 작업을 했다. 힘들기도 했지만 그 만큼 일을 많이 했으니까 보람도 컸겠지?

(애용)

10월호는 아무래도 어머니 큰잔치 특집호가 될 수 밖에 없다. 갑자기 많아진 사건으로 받아보는 교사들은 어리둥절 하겠지만, 배치에 맘 댄 편집부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어여뻐 읽어주시길...

(정은)

제목: 함께 가는 길 10월호

발행인: 최 현 숙

편집인: 정희연, 이애용, 이정희

서정은

발행일: 1992년 10월 21일

발행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구로구 구로5동 41번지 16호 2층

838-3296~7